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일본·EC 가전협력 강화

EC집행위원회는 가전제품 및 관련부품부문에서 EC와 일본전자업체의 협력증진을 위해 3백만 ECU규모의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EC전자업체가 일본에 대한 인쇄회로기판(PCB) 공급을 늘려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EC의 전자업체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틴 방계만 집행위부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양국 전자업체의 협력증진 및 경쟁력 배양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美경제 작년 4/4분기 4.7%成長

지난해 4·4분기중 美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연율로 4.7%와 5.1%에 각각 달했다고 美상무부가 수정발표했다.

지난달 美상무부는 4·4분기중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모두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4·4분기중의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상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추세가 금년상반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지난해 4·4분기중 美경제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세금환급액

이 당초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울들어 소비지출도 약세를 띠고 있어 올상반기중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의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美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4분기중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과 기업수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3. EC, 향후 연구개발사업 기초분야서 기술 상업화로 선회

EC집행위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중전의 기초분야 연구개발에서 탈피, 일본식 기술상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짜고 있다.

'94~'98년간 EC의 연구개발내용을 다룰 제4차 5개년 연구개발프로그램은 업계, 학계, 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개 전문위원회에 의해 입안돼 올해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제4차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있는 3개위원회 중 과학기술연구위원회(CREST)는 각 회원국 과학기술전문관료 2명씩으로 구성돼 회원국과 EC집행위 간의 연구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 및 업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개발위원회(CODESTC)는 우선지원 부문 선정, 기초연구분야 등의 전략입안, 인적 자원 및 자원이동과 관련한 자문제공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EC산업연맹(UNICE), 유럽노조연맹(ETUC), 유럽공기업센터(CEEP), 유럽산업연구소연합(FEICRO) 등의 요원들로 구성된 산업연구개발자문위원회(IRDAC)는 산업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C가 종전의 기초분야 중심에서 이같이 개발기술의 상업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부문의 막강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기술교류의 장벽과 연구개발투자의 분산, 또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의 부진 등으로 美·日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는 의학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美·日에 밀릴 뿐만 아니라 특히 GDP비중으로 본 연구개발투자 규모에서도 지난 90년 2%에 그쳐 미국(2.77%), 일본(3.07%)에 크게 뒤졌다.

이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EC는 84년부터 EC차원의 연구개발계획 정책방향, 예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 제3차(90~94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제3차사업은 ▲정보통신, 공업, 소재 등의 기술개발 ▲환경, 생명공학 및 기술, 에너지 등의 천연자원관리 ▲인적자본 및 이동의 지적재산관리 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EC의 연구개발사업은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40억달러를 투입하는 JESSI 등의 유럽연구협력기구(EUREKA) ▲915개의 프로젝트를 수립해 '94년까지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98억달러를 투입하는 유럽정보기술 연구개발 전략프로그램(ESPRIT) ▲제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94년까지 32억달러를 투입, 첨단소재 및 제조기술부문의 1,13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럽기초기술연구(BRITE) ▲'94년까지 28억달러를 투입, 최첨단 통신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유럽첨단통신연구(RACE) 등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EC의 연구개발사업은 상호보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간에는 성공을 거뒀으나 HDTV, 반도체 등의 전략연구사업부문에서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

4. EC, 기업차원 환경규정 인정

EC환경장관들은 기업자체의 환경보호계획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또 산업쓰레기의 개도국이전을 금지하고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해 가솔린 가스방출을 줄여나가는데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EC환경장관들이 말하는 기업자체의 환경계획은 환경보호의 책임을 기업이 공유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기존의 환경법규들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기업자체의 환경보호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선 국별환경법들을 따라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 이의 진행사항을 매년 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또 각 회원국은 자체 감사요원을 선정, 3년마다 개별기업의 환경계획추진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자체 수립한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C집행위는 이 기업환경계획을 5년간 시험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회원국간에 차별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틀간의 회동에서 EC환경장관들은 또 가스유출방지를 위해 가솔린탱커, 트럭, 저장탱크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가스회사들은 막대한 돈을 투입, 연료가스를 재생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환경장관들은 이번 회동에서 이산화탄소 배기량 삭감안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독가전업계 심각한 위기

독일의 가전업계가 현재 상황을 위기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독일 가전업계는 작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재고누적으로 업계간 가격인하 출혈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해외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고전하고 있다.

특히 독일 가전업계의 경우 생산코스트가 인근 국가들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여기에 각종 환경보호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컬러TV와 VCR, 캠코더 등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판매대수는 전년보다 각각 2.7%, 12.4%, 16% 각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오히려 2.3%, 7.4%,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92년 독일의 가전제품 판매대 수

품 목 명	판매실적	(만대, %)	
		전년비	증기율
컬러 TV	575	2.7	
비디오 레코더	323	12.4	
캠코더	118	16.0	
휴대용 CD 기기	53	83.0	
자동차용 CD 기기	23	64.0	
레코드 플레이어	46	-16.0	
오디오 카세트	14,400	-9.0	
휴대용 오디오 기기	1,500	-6.3	
카세트 테이프	109	-5.0	
인공위성수신장치	160	19.0	
데이타 카세트	76	52.0	
비디오 카세트	12,000	4.3	
자동차 라디오	475	-17.0	
확성기	77	-6.0	
튜너	53	-5.0	

자료: 독일 가전산업협회(GFU)
소비연구소(GFK)

독일 가전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같은 기간 동안 레코드 플레이어, 자동차 라디오 등과 같은 품목들은 각각 16%와 17%씩 판매가 격감했고 이 밖에 인공위성 수신장치와 안테나 등도 모두 10% 이상 판매가 감소, 그동안 주력 상품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했다.

작년 한해 동안 독일 가전업계의 매출액은 컬러TV나 비디오 카세트 등 일부 상품들의 증가에 힘입어 모두 250억마르크를 기록, 제작년 수준을 거의 유지했으나 이것은 크리스마스 특수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는 한해 동안 줄곧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서구기업들 역내투자지역 조정

EC 기업들이 유럽시장 내에서 투자지역을 조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EC 시장의 단일화와 동유럽 개방에 따른 저가 노동력의 공급증대로 그동안 현지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시 주요변수이던 진출국의 시장규모 여부가 중요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EC 기업들의 최근 투자경향은 유럽시장 전체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의 달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의 포장전문기업인 보워터社は 그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해왔으나 최근 국제간 평균임금이 크게 변화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생산공장을 모두 자국으로 이전시켰다.

역시 영국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IMI사도 얼마전 독일의 생산기지를 모두 자국으로 이전했는데 이 기업은 영국이 다른 기업에 비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등 제반 사회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